

트럼프·룰라, 백악관서 비공개 회담…"무역·관세 논의"

등록 2026.05.08 03:57:57 | 수정 2026.05.08 05:48:23



[쿠알라룸푸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6일(현지 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7.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만나 양국간 무역 및 관세 갈등을 논의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해 약 3시간 동안 머무르며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룰라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소셜에 "방금 막 매우 활기찬 룰라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무리했다"면서 "우리는 무역과 관세를 포함해 많은 주제들을 논의했고,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대표단은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곧 만나기로 했고, 필요에 따라 향후 몇달 동안 추가 회담이 열릴 것이다"고 부연했다.

다만 백악관 예고와 달리 룰라 대통령은 공개 회담 없이 백악관을 떠났다.



[워싱턴=AP/뉴시스]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한 후 차량을 타고 떠나고 있다. 2026.05.08.

백악관은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약 30분간 공개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고, 실제 실시간 중계 화면을 유튜브 채널에 띄웠다. 그러나 2시간 넘도록 대기화면만 이어지다 중계는 종료됐다.

미국과 브라질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 관세 정책을 계기로 긴장 관계를 형성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정적이자, 자신이 지원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정치적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 화해 무드를 조성했고, 미국은 브라질 농산물에 대한 40% 추가 관세를 철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